

너는 행복자로다!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개역, 신명기 33:1]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개역, 신명기 33:29]

신

명기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러면 '신' 자가 하나님이란 뜻이겠네요? '명'은 명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해하면 그럴 듯한데 사실은 앞에 있는 '신' 자가 귀신 신 자가 아니라 '펼칠 신' 자인데 더 찾아보면 '다시 되풀이 할 신' 자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申命'이란 것은 명령을 되풀이 한 책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이란 출애굽하면서 시작한 광야생활에서 주신 율법을 가리키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명기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한가지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전부 뭘로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그 말씀 전부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명기를 가장 애독하셨고 인용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코 신명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책이니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두어 달 전쯤에 요단강 건너편 모압 지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 동안 있었던 일을 죽 되풀이하면서 정돈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출애굽기, 레위에 나왔던 이야기들과 중복이 많이 됩니다. 반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이 세대는 출애굽한 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아주 어렸거나 나중에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다음 세대입니다. 출애굽할 때 어른이었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몇 사람 남았죠? 세 사람 남았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죠. 이 세 사람 중에 모세는 이 얘기를 다 한 후에 여기서 죽고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2세대에게 모세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당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돌아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너희 부모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과거를 돌아보라. 제발 너희 부모들이 악행과 불순종한 것을 본받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라. 그리고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그것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너희들의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가 신명기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요약이면서 동시에 모세가 남기는 유언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전체는 어떻게 본다면 모세가 남기는 유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하지 않았던지 구약 성경 어디를 펴보아도 그런 예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이야기만 죽 기록된 것이 구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할 그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 중에 몇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을 당했지만 진짜 고통스러운 재앙이 내렸을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영화의 그 장면을 보고도 감탄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마른 땅을 건넜던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불평불만이 터지는 거죠. 낮에는 구름기둥

이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앞을 밝혀주기도 하면서 따뜻한 기온도 제공을 해주었을 겁니다. 그 걸 매일 보면서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리지 마라 더 이상...” 안 말리면 어떡하는데요? “말리지 마라” 어떡하겠다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끌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하나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랬겠습니까?

모세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제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런다면 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끌고 간다고 가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다면 누가 창피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죠.

이런 얘기 듣고 나중에 똥판지 같은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랬단 말입니까?” 이리저 마십시오. 지난번에 모세 이야기 하면서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될 걸 엄연히 아시면서 그 속마음을 한번 털어놓은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그 교제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을 수 있을 만큼 모세가 자랐다는 좋은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러진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하고 같이는 못 가겠다. 네가 인솔해서 네가 데리고 가거라 같이 못 가겠다.” 같이 못 가는 이유가 뭘니까?

내가 앞장서서 데리고 가다가는 이놈들 불평불만할 때 한순간에 멸해버릴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차라리 같이 안 가는 게 낫겠다. 네가 인솔해서 가라. 모세가 거기서 또 하나님께 그러시면 안됩니다. 이래서 결국은 같이 갑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많이 했는지는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인내하시면서 인도해 가셨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 자신의 얘기라고 생각해 보시면 비슷한 점이 아마 없지 않아 좀 있긴 있을 겁니다. 저는 신학교 가야 한다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한 삼십 년을 버텼습니다. 안 두들겨 맞은 게 참 용하죠. 저하고 같이 있는 어느 전도사님이 저 보고 그래요. 자기가 아는 분 얘기를 하면서 “전도사님은 다리 하나 안 부서지고 멀쩡하게 신학교 갔으니까 감사 헌금 해야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저 자신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버텼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런 예가 어디 하나 둘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어떻게 이 모양으로 사느냐 해서 이거 하나는 고쳐야지 하는데 참 어렵지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이런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가신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요? 얼굴에 첩판 좀 깔아도 됩니다. 용서는 하십니다. 그로 인해 내가 좀 힘이 들어서 그렇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아시죠?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압권? 불순종하는 그 많은 장면들 중에서 압권. 제일 멋진 장면. 뭐지요?

금송아지 만든 것.

금송아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십계명 돌판 깨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끝났습니다. 그것보다 더 흑독한 사건 있죠? 이게 압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을 안 했으면 이랬을까 가장 큰 벌 받은 사건요.

불뱀.

불뱀요? 그것도 작지 않지만 더 큰 불순종이 있어요.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모세가 바로 그 사건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신명기 1장 2장에 걸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부터 모세가 과거 회고를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벌을 40년간이나 받았는데요? 불뱀도 큰 사건이었고 금송아지 만든 것도 큰 사건이지만 그건 짧은 시간에 끝났잖아요. 40년간 벌을 서야 했던 사건이 뭐였죠?

가테스 바네아

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하는 게 좋겠군요. 출애굽한지 약 2년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한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12명 보냈습니다. 정탐을 해오라고 보냈더니 갔다와서 10명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거인 같아서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거기서 앉아 울며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어디 문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끌어다 문을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했죠. 그때 두 사람이 “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으니까 올라가자. 저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이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밥이다?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밥치고는 너무나 큰 밥이었어요. 올라가자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적인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로 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징벌을 선언하십니다. “40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해야 할 것이다.” 왜 40년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탐하러 갔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고, 또 다른 목적은 그때 불평불만 하고 하나님께 끝없이 도전했던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 그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모세는 신명기 이야기를 시작해 나갑니다.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얼마만한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보라는 얘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은 신명기의 사실상 끝부분입니다. 뒤에 34장이 있지만 그것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내용이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33장에서 끝납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다 당부한 마지막 중에도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뭐냐 하면 너희는 행복자라는 겁니다. 그 긴 이야기를 다 한 후에 너희는 행복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러죠?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여호와와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잘못된 거 수 없이 많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여호와와 구원을 너희같이 받은 백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는 행복자라고 모세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복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실제로 행복한가요?

행복한지 안 한지를 살펴려면 제일 먼저 의식주 문제를 따지죠? 의식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야 우선은 행복한 겁니다. 이 사람들 옷 말입니다. 이 옷 어디서 샀을까요?

애굽에서.

몇 년 전예요?

40년 전에.

누가 샀어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애굽을 모릅니다. 누가 샀어요?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40여년 전에 사서 입고 있던 것을 광야 생활하면서 물려받아서 입고 있는 옷입니다. 사십년 동안 헤어지지도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셔서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헤어지지 않는 옷 좋아요? 아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요. 저도 옛날에 고무신 제발 좀 떨어져야 새로 하나 살 건데 싶어서 세멘(시멘트) 벽에도 문질러 보고 유리 조각 주워서 긁어 봤는데 안 떨어지더라구요. 왜 그렇게 질긴지 모르겠어요. 이게 떨어져야, 시커먼 고무신인데요, 이것이 떨어져야 내버리고 다른 애들 신는 하얀 고무신 한번 신어볼거라고 세멘 벽에도 문질러 보고 유리조각에 긁어봐도 안 떨어져요.

옷요? 별로 좋지 않은 옷이 질기긴 왜 그렇게 질겨요? 물려받은 옷요? 요즘 물려받은 옷은 그래도 질이 좋아서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너댓살 적에 어느 집사님께서 옛날말로 ‘뚝바라는 거 있죠? 그것 한 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뚝바를 우리 형제 다섯 명이 물러가면서 다 입었어요. 떨어져야 말이죠. 대를 물러가면서 다 입었는데 워낙 옷이 없으니까 그것도 감지덕지죠. 저는 만이가 되서 물려받아 입을 옷도 없어서 중학교 들어갈 때 우리 누나 바지 입고 시험 치러 갔던 모양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만 하면 지금도

올어요. 저는 못 느꼈는데 면접하는 선생님이 “야, 너 누나 있지? 나 잘 안다.” 이러더랍니다. 밖에서 우리 어머니가 그걸 들었나봐요. “그 놈의 선생, 알기는 잘도 안다.”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 입고 있는 이 옷은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폼서리 나는 옷이 아닐까 싶어요.

옷 얘기만 나오면 제가 빠뜨리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모습은 절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말씀 드립니다. 어떤 분이 모처럼 유행하는 멋진 옷을 입고 왔어요. 남자들보다 주로 여자분들이 그러죠. 한 벌 입고 오면 그 다음에 그 옷이 살금살금 번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잘 못 느꼈는데 누가 얘기를 하길래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옷 있으면 절대로 교회에 입고 와서 폼잡지 마세요. 교회는 내가 이 옷 입고 감으로 해서 혹시 마음 다치는 다른 성도가 있지 않을까 이것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성도가 샘을 내거나 새 옷 해 입지 못하는 성도가 마음 아파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안 입고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옷은 어디에 입고 가야죠? 동창회 갈 때는 입고 가세요. 옛날 학교 다닐 때 못 살고 못 먹는다고 받았던 구박을 거기 가서 다 푸세요. 야! 너 요새 잘 사는가보다. 그런 말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안됩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그렇습니다. 먹는 거 어때요? 광야 40년을 살면서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는 굉장히 맛있었다고 그러거든요. 맛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됐죠? 누가 “아이고...” 하시네요. 아무리 맛이 있어도 똑같은 음식을 40년 먹으면 폼서리날 겁니다. 제가 가끔 집에 오면 한번씩 라면도 먹고 어디 나가서 뭐 먹자 그러면 국수 잘 시켜먹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래요 “그것 먹고 힘 나냐?” 그럼 대답을 이렇게 하죠. “밥을 한 40년 먹었더니 인제 질린다.” 농담입니다. 한국 사람들 밥을 40년 먹어도 안 질려요. 참복입니다. 그런데 밥 말고 다른 것 한 번 잡쉬보시죠. 어려울걸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에게 다른 것 다 쳐두고 고기만 한번 잔뜩 먹여 보시죠. 얼마나 갈려는가.

저는 올해 예전보다 먹는 것도 적게 먹고 설치기는 더 설치고 그런데도 살이 찢더라구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데 결국 내린 결론은 토요일, 주일 교회서 먹은 밥 덕분입니다. 혹시 집에서 밥맛이 없거들랑 주말 저녁에 교회 와서 얼얼얼얼 해보십시오. 외식보다 나은 밥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든지 나와요.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 밥이 살찌게 하더라구요. 우리 교회에서는 먹는 것 하나는 정말 풍성합니다. 몇몇 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대면 40년동안 똑같은 것만 먹었습니다. 다른 것 뭐가 있겠어요? 40년동안 같은 음식만 먹고 지금 쭉그리고 앉아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자다! 입는 것도 먹는 것도 그런데 이게 뭐 행복할까요?

마지막 남은 것, 주! 집은 어때요? 어디에 삽니까? 천막 아십니까? 그리고 둘러보면 사방 풍경은 삭막하죠. 제가 포항시내에서 10년을 출, 퇴근했는데 이쪽 지국 안으로 들어와 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상도 중학교에서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무라고는 잘 안 보여요. 주택가 한복판이거든요. 마지막 3년은 항도여중에 있었는데 항도여중 바로 앞에는 수도산이 있어요. 수도산 모습이 어떤지 알아요? 몇 년 전에 불이 나서 꼭 중학생 머리 뺏박 밀어놓은 것 같아요. 사방이 그러니 계절 바뀌는 걸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경주로 발령이 났는데 “이야!” 첫날부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포항시내에서 제가 안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주로 첫 출근하던 날 외팔교 지나가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어요. 그 안개 속을 뚫고 운전하는데 기분이 참 좋네요. ‘전설의 고향’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계절의 변화를 날마다 느껴요. 출근 때마다 꽃이 얼마나 피는지 몰라요. 어느 날은 도로변 수 킬로미터에 걸쳐 전기줄에 새가 좌악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참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한 5분 정도 출근길의 그 소감을 영어듣기 훈련도 시킬 겸 영어로 들려주곤했죠. 참 재미있었어요.

어려운 점은 꽃이 철따라 계속 피는데 이걸 영어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미국 사람 붙들고 어떡하면 되냐고 물어 보니까 자기도 모르네요. “니는 미국 사람이 영어로 못하면 어떡하냐?” 하니까 꽃이 다 다르네요. 미국에서 보는 꽃하고 여기서 보는 꽃하고 달라서 자기도 설명을 못하겠네요. 미국 사람도 설명 못

하는 걸 할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 제 교실이 2층인데 소나무가 교실 유리창 높이하고 똑같아요. 수업하다가 내려다 보면 소나무 위에 앉은 학이 된 느낌이에요. 소나무! 참 아름답고도 운치있는 나무입니다. 소나무가 가지를 뺏치고 있는데 그 위에서 수업을 하다가 가끔가끔 내려다봐요.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같이 있던 선생님들은 벚꽃만 피면 점심을 교실에서 안 먹어요. 차 몰고 시내로 나가요. 벚꽃 피는 곳을 휘 둘러서 먹고 들어오죠. 저도 한 두번 따라가 봤죠. 벚꽃 피어 있을 때보다는 벚꽃이 지면서 눈처럼 휘날릴 때 그 속을 차로 한바퀴 돌면 멋져요. 포항에 있을 때는 계절의 변화를 몰랐는데 경주 몇 년 다니면서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낙엽이 아주 예쁘게 드는 곳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낙엽 드는 곳에 한번 올라가 볼거라고 걱정했는데 못 가보고 왔습니다. 포항 시내에 있다가 경주 풍경을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만 뜨면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거기 뭐 볼 게 있겠습니까? 포항 시내보다 더 거칠고 삭막한 이런 곳에 백성들을 앉혀놓고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 식은 고사하고 주거지마저 이 모양인데도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참 좋아 보이죠? 그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지금 누가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면 누가 어서 오십시오 하나요? 안 합니다. 전부 싸워서 밀어내야 합니다. 싸움 언제 한번 제대로 해봤나요? 군사훈련 한번을 해봤나요? 싸움 잘 하는 훈련된 군인들이야 전쟁이 일어난다면 신난다 하고 뛰어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40년 전에 자기 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발버둥쳤다가 40년 동안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던 그 민족과 이제 싸워야 합니다. 그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말하자면 미래가 불안한 거죠.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이들을 향해서 모세는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받은 백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 만한 행복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분만으로 행복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단정코 말하기를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읍.

맞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왜 먼저 안 나와요? 여름 내내 '무화과 나무 열매 없으며...' 해놓고요. 더군다나 그 노래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무화과 나무 열매 없으며'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얼마 안됐는데요.

농사를 1년 내내 지었는데 소출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구요? 그게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하박국 얘기 대신 우리 얘기합시다. 중, 고등학교 6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미끄러졌습니다. 그래도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구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박국의 노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그것이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비록 바울은 고생을 엄청나게 했지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험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고통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위로가 늘 함께 있었습니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읍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고 친구들과 끝없는 논쟁을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나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무지한 말로, 도대체 이치를 알지 못하는 무식한 것이

안다고 떠들어대는 게 누구냐? 나중에 보니까 자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욕이 무얼 잘못했어? 하나님께서 다 알아갔는데?

욕이 하나님께 다시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더 알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 됐다는 말입니다. 재산을 다 회복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린 상태임에도 행복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추가로 주신 것입니다. 물질의 복은 보너스일 뿐입니다. 욕이 받은 복이 뭐냐고 할 때 재산이 두 배로 늘어난 것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욕이 받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 것, 이것이 욕의 진정한 복입니다. 그렇게 기쁨을 완전히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이전보다 배로 많은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경우를 가리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태복음 6:33)'고 하셨거든요. 먼 저라는 말이 참 죄송합니다만 사람 죽이는 표현입니다. 신앙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는 이쪽으로 가야 출세하는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는 갈등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먼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이 생겨나거든 모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고 그런 갈등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도 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참 좋겠죠.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거나 거의 없어요.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주가 그 모양임에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찾는지 확인해 봅시다. 행복하냐고 물으면 뭐부터 생각을 하죠?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아파트 평수대로 모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서운 얘깁니다. 이 주택단지 안에는 아파트 평수가 비슷해서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용흥동 우방아파트가 들어설 그 무렵인데 거기는 학교에서 아파트 평수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아파트 평수나 차 종류 가지고 끼리끼리 모인대요. 이게 참 문제는 문젠입니다.

오늘 강 집사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여기 계셔야 오해가 없는데... 제가 이 교회 처음 왔던 날 제 차를 마당에 두었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어느 O이 폐차할 차를 교회 마당에 버리고...” 그랬다나요. 제 차가 고물이라는 건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사실은 먼지가 끼어도 잘 닦지도 않습니다. 학교에서 지난 가을에 하늘 쳐다보면서 “비가 와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 비가 와야 된다고 걱정하던 때입니다. 수업 중에 “비가 와야 되는데...” 했더니 어느 녀석이 물어요. “왜요?” “비가 와야 내 차가 깨끗해질건데...”

아파트 평수 시원찮고 차가 시원찮아도 괜찮은 세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에 한번 갔다왔냐를 따지세요. 꼭 갔다 와야 합니까? 애들 기 안 죽일려고 보내야 되는 풍토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불행합니까?

막말로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하거나 기죽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 때문에 행복했던 얘기를 한번 드리고 지나가는 게 좋겠네요. 제 차는 멀리 가지 말라고 선고를 받은 차입니다. 그래서 멀리는 못 가는데 여기 부임한지 두 달만에 평택에서 하는 수련회에 다녀와야 하겠는데 교통편이 어려웠습니다. 고물 차지만 몰고 갔다와야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무사히 다녀오도록 기도를 부탁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자기 차 갖고 갔다오시라 해서 갔다가 내려오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차를 몰고 가서 행복한 게 아니고 자기 차 열쇠를 제게 넘긴 최초의 사건입니다. 뭘 믿고 나에게 차 열쇠를 넘기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설픈 사람을 그래도 전도사랍시고 생각해주는 것이 눈물겹도록 고마웠습니다. 제가 무얼 했다고 이런 대접을 만나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운전하는 동안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든 것은 결코 차 때문이 아니라 그 집사님 부부의 마음이었습시다. 벌써 1년이 다 된 얘기지만 그 행복이 아직도 제 가슴에 쩡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평생 잊기 어려울 겁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은 절대로 집 평수나 자동차나 외국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잘해줘서 행복하고 아내가 잘해줘서 행복하고 자식이 잘해서 행복하면 큰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의 근원을 거기서 찾지는 마십시오.

자식은 언젠가 부모를 배신합니다. 배신을 해서 배신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에게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부모는 섭섭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예 자식은 언젠가 나를 배신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시오. 저 녀석들이 애비 애미를 몰라보고...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본전입니다. 떠나갈 때 한번쯤 뒤돌아보고 떠나가면 고마운 줄 아시고 안 돌아보고 그냥 떠나가면 정상이려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것이 저희 집에 부모님이 같이 계십니다. 제 나름대로는 섭섭하게 안 해 드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저의 의도와는 달리 섭섭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내가 너 거 키울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건 자식이 안 알아주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고, 떠나갈 때 깨끗이 떠나보내시는 게 옳습니다. 자식에게 행복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밤새도록 기침하면서 고생할 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괜히 자다가 일어나서 위로하는 말이랍시고 한마디 거들면 이게 방해가 되지 도움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침 소리 듣고 잠이 깨면 괜 척 하지 않는 것 뿐이었습니다. 잠은 안 와요. 저러다가 죽을지 모르는데라는 생각을 하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돌아누운 채 잠자는 척 하면서 밤을 새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서 우리 집사람이 숨을 제법 잘 쉴 때 동생들과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옛날 얘기 하면서 “그때 당신 잘 자데” 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 집사람이 한방 맞았습니다. 탄 것은 모르겠는데 그건 용서가 안되더라고요. “잘 자는 것 좋아하시네”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데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애깁니다. 아내나 남편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효자제일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생활이 참 행복하시죠? 그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요? 목사님 아니에요? 뒤에 목사님 계실 때 대답도 좀 그렇게 해주고 그러세요. 그 행복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라!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큰 복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복의 근원이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 교회나 가도 괜찮겠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목사님이 하나의 징검다리가 돼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건너가야 하는데 이 징검다리가 부실한 징검다리가 가끔 있어요. 견고한 줄 알고 꼭 밟았는데 휘청하고 넘어지면 물에 빠지는 거죠. 튼튼하게 놓여서 우리가 굳건하게 건너갈 수 있게 해주는 징검다리가 있다면 참 고맙긴 하지만 그것이 행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근원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다른 요소도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집 평수 넓으면 행복하죠? 좋은 자동차 가지고 폼나게 살면 기분 좋잖아요. 남들이 아무 소리 못할 때 외국 갔다 온 이야기 한번씩 하면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은 아니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느끼지 못하면 이 땅에서 진실된 행복자는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다 없어지더라도 최후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행복을 누리죠?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 눈 딱 감고 말씀대로 실천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길만이 이 땅에서 진실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처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